Nature, Our Future!

오대산 국립공원

ODAESAN NATIONAL PARK

8.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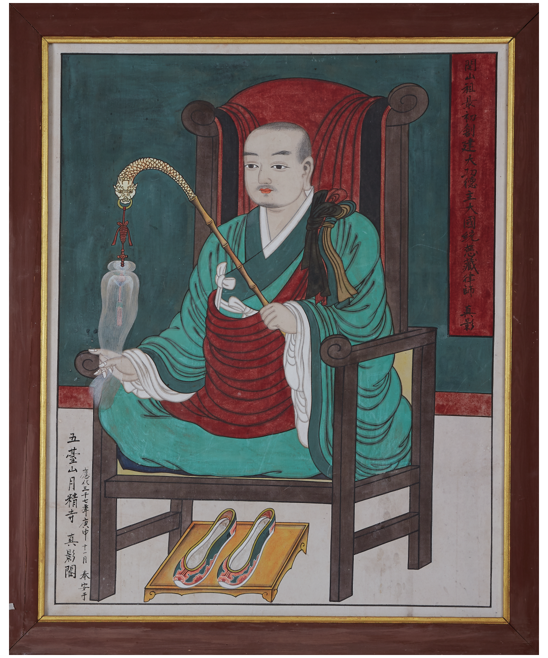
오대산의 여덟 번째 이야기

오대산의 인물

오대산 월정사를 창건한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590–658)

신라의 고승인 자장율사는 638년(선덕여왕 5년) 당나라에 가 수도하던 중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에게서 은밀한 감응을 받고 귀국하여 통일신라의 불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자장의 가장 중요한 불법은 ‘계율’과 ‘문수신앙’이며 그가 창건한 보궁사찰은 양산 통도사와 오대산 중대입니다. 자장이 오대산을 찾은 것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장율사 진영(월정사 성보박물관)

자장이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셨다는 점에서 자장은 불사리를 통한 보궁신앙을 확립하였으며 월정사와 중대 적멸보궁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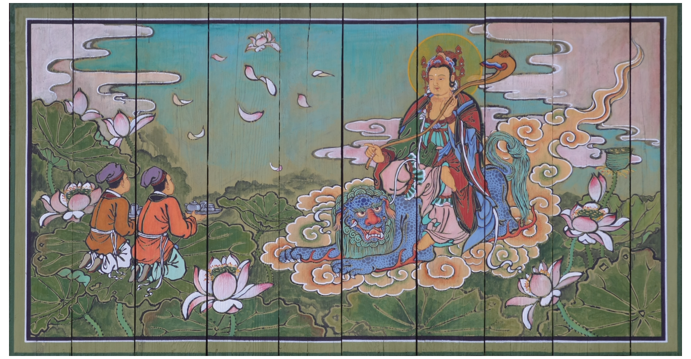
오대산을 찾아 수도한 신라의 왕세자

보천과 효명태자(연대미상)

신라 신문왕이 죽고 왕위 계승과 관련한 혼란이 일자 보천과 효명 두 태자는 지방순시를 핑계로 강릉을 방문하였고, 그 뒤 오대산을 유람하다 지금의 상원사 근처에 초암을 짓고 수도에 정진하였습니다.

702년 신문왕의 장남인 효소왕이 자식이 없이 죽자 조정에서는 왕위 계승자로 두 태자를 찾게 되는데, 보천은 끝내 경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효명은 돌아가서 통일신라의 태평성대를 연 성덕왕이 되었습니다(재위 702–737).

성덕왕은 왕이 된 것을 부처님의 공덕이라 생각하고, 705년 오대산에 행차하여 상원사(당시 진여원)를 창건하였습니다. 현재 오대산에 남아있는 골짜기 ‘보천골’과 ‘효명골’은 이 두 왕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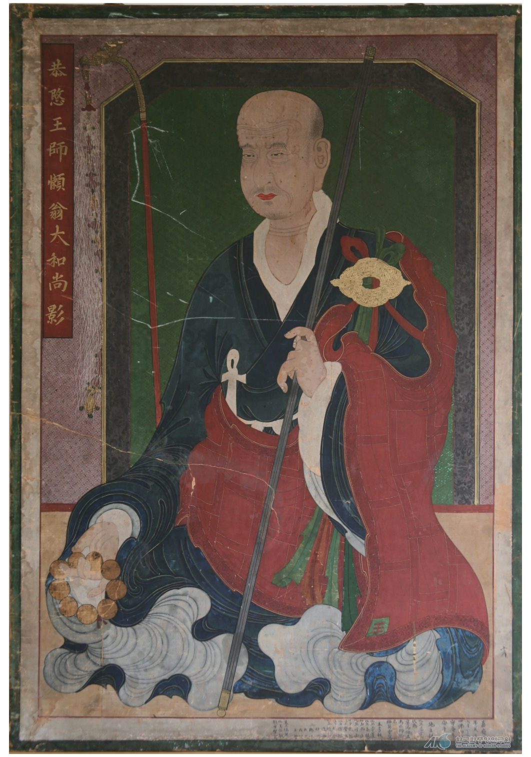
문수보살과 보천, 효명태자(상원사 벽화)

상원사 전경

오대산 불교를 중흥시킨 고려 말의 고승

나옹 혜근선사(1320–1376)

고려 말은 한국 선종에서 고승들이 특별히 많은 시기였습니다. 동시대인으로 태고 보우, 백운 경한, 나옹 혜근이 있는데, 이들은 고려 말의 세 분의 스승으로 불립니다. 조선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는 나옹의 제자입니다.



문경 대승사 묘적암 나옹화상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나옹선사가 10년간의 원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머문 곳이 오대산으로 주로 북대의 상두암(현재 미륵암)에서 수도하였으며, 나옹이 참선했던 ‘나옹대’는 지금도 옛 큰스님의 자취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대 일대에서 일으킨 나옹의 오대산 흥법정신은 그의 제자들에게 계승되어 오대산 불교가 흥성하게 됩니다.

세조와 상원사의 깊은 인연

세조(1417–1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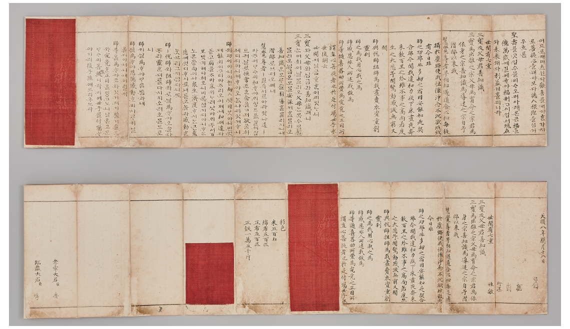
세조는 1453년 계유정난으로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사육신 등 수많은 신하들을 죽인 피의 군주이면서도 부친인 세종의 위엄을 계승한, 치적이 많은 군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조가 창병으로 고통을 받자 치료를 위해서 상원사에 가서 기도할 것을 제안한 인물은 집현전 학자 출신으로 당대 최고 고승이었던 신미대사였습니다.

신미대사의 권유로 상원사를 방문한 세조는 문수동자좌상(국보221호)을 만들게 하고 이를 상원사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1984년 문수동자좌상 안쪽의 복장이 개봉되었는데 복장 안에는 세조의 것으로 보이는 피고름이 묻은 적삼이 발견되어 세조가 창병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상원사를 원찰로 삼고 중수하기 위해 ‘상원사중창권선문’(국보292호)을 지었습니다. 이 어첩은 1464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친필 한글 문서로, 이 문서에 세조는 ‘불제자 이유’라고 자신의 이름을 쓴 후 수결을 하고 옥새를 찍었습니다.

세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적삼(월정사 성보박물관)



중창권선문(월정사 성보박물관)

FSC PRINTED WITH SOY INK

8.인물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2
033) 332–6417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ODAESAN NATIONAL PARK(2021.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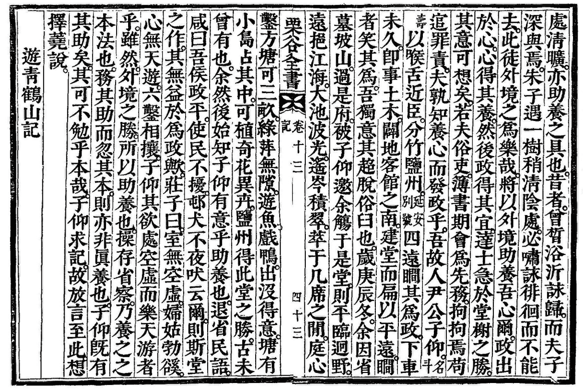
소금강을 유람하고 감흥에 젖은

율곡 이이(1536-1584)

율곡 이이는 강릉 오죽헌에 있는 외가에서 출생하였으며, 성리학을 정착시킨 조선 중기 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1569년 벼슬을 그만두고 강릉에 왔다가 향리 사람들과 함께 오대산 소금강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 〈유청학산기〉가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청학산기〉에는 소금강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소금강의 예전 이름인 청학산이 제목으로 나옵니다. 소금강계곡 곳곳의 명소 이름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고, 소금강의 빼어난 경관에 대한 그의 감흥이, 아래의 문구에서처럼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병풍같이 둘러친 두 개의 절벽 사이에 시냇물이 흘러오다 폭포수가 되어 떨어진다.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듯 온 골짜기가 흔들린다. 그 폭포수는 다시 고여 못을 이루며, 이 못은 차가운 거울 같고 깨끗한 옥과도 같도다. 이 산 전체를 청학산이라 명명했다.”(〈유청학산기〉 일부)

율곡 이이의 소금강 방문 이후 조선의 선비들은 율곡의 발자취를 따라 소금강을 찾아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였고, 그 흔적을 많은 글자로 남겼습니다.


栗谷全書　卷十三

處淸曠。亦助養之具也。昔者。曾皙浴沂詠歸。而夫子深與焉。朱子遇一樹稍淸陰處。必嘯詠徘徊而不能去。此徒外境之爲樂哉。將以外境助養吾心爾。政出於心。心得其養。然後政得其宜。達士急於堂榭之勝。其意可想矣。若夫俗吏簿書期會爲先務。拘拘焉苟逭罪責。夫孰知養心而發政乎。吾故人尹公子仰（名斗壽）以喉舌近臣。分竹鹽州（延安別號）四遠矚其爲政。下車未久。卽事土木。闢地客館之南。建堂而扁以平遠。矚者笑其爲吾獨意其超脫俗臼也。歲庚辰冬。余因省墓坡山。過是府。祓子仰邀余觴于是堂。則平臨迥野。遠挹江海。大池波光。遙岑積翠。萃于几席之間。庭心

栗谷全書　卷十三　記　四十三

鑿方塘可三畝。緣莽無隙。遊魚戲鴨。出沒得意。塘有小島占其中。可植奇花異卉。鹽州得此堂之勝。古未曾有也。余然後始知子仰有意乎助養也。退省民語。咸曰吾侯政平。使民不擾。邨犬不夜吠云爾。則斯堂之作。其無益於爲政歟。莊子曰。室無空虛。婦姑勃谿。心無天遊。六鑿相攘。子仰其欲處空虛而樂天游者乎。雖然。外境之勝。所以助養也。操存省察。乃養之之本法也。務其助而忽其本。則亦非眞養也。子仰旣有其助矣。其可不勉乎本哉。子仰求記。故放言至此。想擇蕘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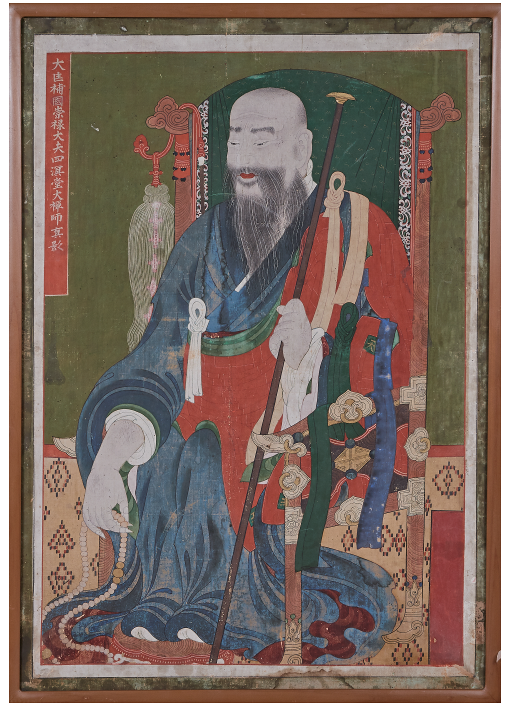
遊靑鶴山記

유청학산기(한국고전번역원)

퇴락한 월정사를 재건한

사명당 유정(1544-1610)

사명대사는 2년 만에 승과에 합격하고 묘향산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규합하여 1593년 평양성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적을 쌓았으며, 1604년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포로로 잡혀간 우리 동포 3천5백여 명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불제자이면서도 깊은 유학적 소양과 탁월한 문필을 지녀 유학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명당 유정 진영(월정사 성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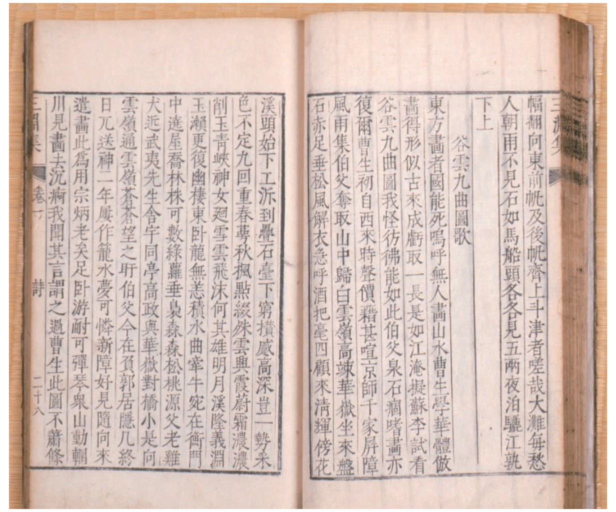
사명대사는 금강산을 내왕하며 오대산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오대산인’이라 칭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오대산의 고승이었으며,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하기 위해 1606년 오대산 사고를 지을 때 조정에서 그 공사의 실질적 총감독을 사명당에게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중기 천년고찰 월정사를 중건코자 3년간 전국을 다니며, 권선 활동을 하여 마침내 퇴락한 사찰을 재건하였으니, 오대산 월정사를 일으킨 그의 공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대산을 유람하고 기행문을 남긴 조선후기 문신

삼연 김창흡(1653-1722)

1695년 10월 초순 경 4박 5일간 오대산을 유람하고 그 기록을 ‘삼연집’ 내 ‘오대산기’로 남긴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예가입니다. 그의 유람 경로는 ‘금강연-월정사-금강대-오대산사고-상원사(1박)-중대-사자암-적멸보궁-상원사(1박)-진여각-북대-상원사(1박)-우통수-서대-상원사(1박)-하산’과 같습니다.
김창흡은 ‘오대산사고를 보고 양각으로 이뤄졌으며, 주위에 많은 산들로 둘러싸여 신령이 보호하는 듯 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적멸보궁을 ‘산신이 지키고 있는 풍수 제일의 명당’이라 평가했습니다. 김창흡은 오대산기에서 오대산의 뛰어난 경치 네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이 산은 그릇이 중후하여 마치 유덕한 군자 같다. 가볍거나 뾰쪽한 태도가 전혀 없다.
둘째, 빽빽한 전나무숲과 아름드리나무는 해를 가려 영락없는 첩첩산중이다. 김시습은 ‘풀과 나무가 우거져 속된 자들이 거의 오지 않는 점에서 오대산이 최고’라 했다.
셋째, 암자들이 빽빽한 산림 속에 있어 곳곳마다에서 하안거를 할 수 있다.
넷째, 샘물 맛이 가히 절색이라 다른 산에서는 이런 샘물을 찾아볼 수 없다.


三淵集

幅翻向東前帆及後帆齊上斗津者嗟哉大灘每愁
人朝雨不見石如馬船頭各各見五兩夜泊驪江孰
下上

谷雲九曲圖歌

東方畫者國能死嗚呼無人畫山水曹生學華體倣
畫得形似古來成虧取一長是如江淹擬蘇李試看
谷雲九曲圖我怪彷彿能如此伯父泉石痼嗜畫亦
復爾曹生初自西來時聲價藉甚喧京師千家屛障
風雨集伯父奪取山中歸白雲嶺高竦華嶽坐來盤
石赤足垂松風解衣急呼酒把毫四顧來淸輝傍花
溪頭始下工泝到疊石臺下窮攢蹙高深豈一勢采
色不定九回重春萼秋楓點綴殊雲興霞蔚霜濃濃
削玉靑峽神女廻雪雲飛沫何其雄明月溪隆義淵
玉瀨更復幽棲東卧龍無恙積水曲牽牛宛在衡門
中遶屋喬林株可數綠蘿垂裊森森松桃源父老雞
犬近武夷先生舍宇同亭高政與華嶽對橋小是向
雲嶺通雲嶺蒼蒼望之盱伯父今在負郭居隱几終
日兀送神二年屢作籠水夢可憐新障好見隨向來
遺畫此爲用宗炳老矣足卧游耐可彈琴泉山動輒
川見畫去沉痾我聞其言謂之過曹生此圖不蕭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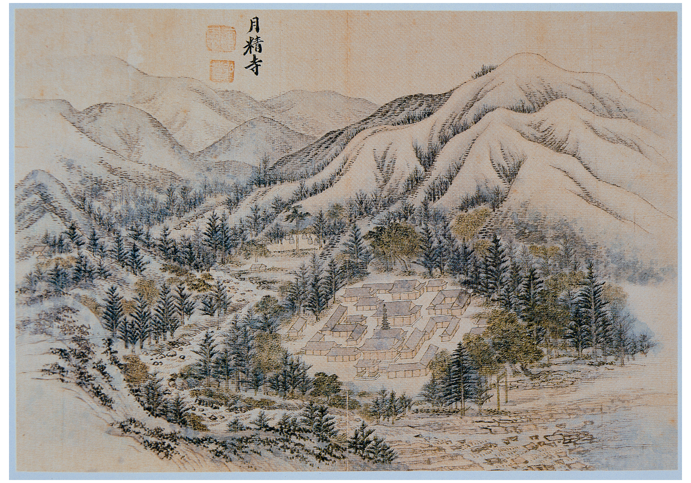
三淵集　卷一　詩　二十八

삼연집(한국학중앙연구원)

18세기 오대산의 모습을 남긴 조선의 화가

단원 김홍도(1745-?)

조선 영조. 정조의 문예부흥기부터 순조 연간 초기에 활동한 산수화와 풍속화에 뛰어난 화가입니다.
김홍도는 1788년 오대산, 금강산 등을 직접 답사하여 70여 장의 산수화를 그렸는데, 이 화첩이 ‘금강사군첩’입니다. 오대산에서는 월정사, 상원사, 중대 적멸보궁, 오대산사고 그림 등 모두 4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744년 오대산 월정사에 큰 화재가 일어나 전각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얼마 후 왕실의 지원을 받아 중건되었는데, 이 무렵의 월정사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림이 김홍도가 그린 월정사 전경입니다.
월정사의 그린 그림에서는 팔각구층석탑을 중심으로 20동의 전각, 그리고 부도밭까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이 그림은 18세기 후기 월정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833년 절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니 김홍도의 그림은 가장 오래된 월정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월정사(금강사군첩)

한국전쟁으로부터 상원사를 지켜낸

한암스님(1876-1951)

한암스님(월정사 성보박물관)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22세에 금강산 장안사로 출가하였고, 50세에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와 3본산 승려 수련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선종을 널리 일으켜 열반 때까지(1925-1951) 산문을 나가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였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네 번이나 종정에 추대된 근대 한국불교를 이끈 큰 스님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상원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국군이 상원사를 불태우려 했으나 한암스님이 단신으로 막아낸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 후 미군이 사찰을 수색하던 중 입적한 모습 그대로 발견 되었습니다.

한암스님과 상원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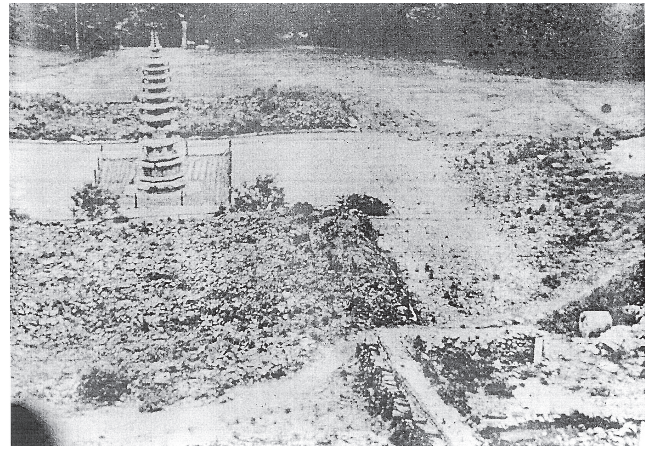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은 상원사가 적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원사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각 명령을 받은 젊은 장교가 한밤중에 군인들을 이끌고 상원사로 올라와 그 뜻을 한암스님에게 전했습니다. 한암스님은 그 말을 듣고는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니 절을 지켜야 하고 당신들은 군인이니 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불을 지르시오”라고 하며,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군은 결국 절을 태우지 않고 절 마당에 문짝들을 모아 태움으로써 전소 처리한 것으로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암스님의 목숨을 건 노력 덕택에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의 사암이 불탔어도 상원사는 소실을 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인 상원사 동종과 세조 임금이 발원한 목조문수동자좌상을 지금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처: 황원갑, 한암(漢岩)선사 일화

월정사를 잿더미로 만든

워커장군과 김백일장군

오대산은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늘 북한군 침투의 길목이 되었습니다.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후 오대산은 격전장으로 변했고, 미8군 사령관 워커(H. Walker) 중장은 북한군이 이용가능한 모든 시설의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동부전선 국군1단장 김백일장군은 적이 이용할 수 없도록 모든 사찰과 민가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월정사의 모습(월정사 성보박물관)

이에 국군은 차마 월정사와 상원사를 소각하지 못하고 하산하던 중 통행증이 없는 민간인을 붙잡아 그들로 하여금 사찰을 소각하게 하였으니, 이들이 전각마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1951년 1월 연기가 오대산의 하늘을 덮었다고 합니다.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만 남긴 채 모든 전각이 불타버린 비극이 한국전쟁기 국군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다.
냉전시기 전쟁 속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이념 갈등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월정사의 역사 문화의 폭은 더 넓고 깊이는 더욱 깊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한상길, 2011,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전통, 한국선학회〉
〈염중섭, 2013, 자장의 오대산 개창과 중대 적멸보궁, 한국불교학회〉
〈황인규, 2020, 나옹과 오대산 북대, 불교학연구회〉

제작 담당
자연환경해설사 김영복
감수
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